



7면

전기차 선도도시 실현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충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0년 7월 7일 화요일 (음 5월 17일) 제2572호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주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원 2길 6번지



국가예산 확보에 '은 힘' 6일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해 우범기 정무부지사, 강승구 기초실장 등 전북도청 전 실·국장이 내년도 국가예산확보를 위해 세종청사로 출출
동한 가운데 송하진 도지사가 인일환 기재부 2차관, 안도걸 예산실장, 한훈 경제예산실의관 등 기재부 예산 카맨(Key man)들을 만나, 전북도
주요 현안 사업들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코로나 방역 준수 강화”

송 지사, 마스크 착용·방역관리자 지정 등 주문

송하진 도지사가 연일 코로나19 확진자가 50명 인파로 발생하는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여 마스크 착용, 소독, 거리두기, 방역관리자 지정 등 기본 방역 준수를 철저히 해달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송 지사는 6일 오전 열린 간부회의에서 대전 광주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지역사회 감염 위험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해 집단감염 위험시설을 재점검하고 마스크 착용 QR코드 도입, 거리두기, 방역관리자 지정 등 기본 방역 수칙을 강화하는 한편 미준수 사례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특히 QR코드 도입과 관련한 설치 운영의 상시점검과 방역관리자 지정 행정명령이 현장에서 확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코로나19 방역을 강조했다.

송하진 지사는 이와 함께 누적된 피로와 무더위에 힘들어하는 보건소 현장근무자들에 대한 격려방안

을 마련할 것도 지시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근무자들의 피로 누적에 따라 코로나19 대응에 누수가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현장 근무자들의 근무환경을 점검해 대민서비스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한 것이다.

또한 송하진 도지사는 지난 주말 저수지 붕괴와 관련해 저수지 우수저류지, 도로, 교량 등 안전시설에 대한 점검이 코로나19 방역 집중으로 인해 소홀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도 지시했다.

이와 함께 송 지사는 저수지 전수조사를 통한 안전등급 재점검과 우수저류지, 상하수도, 도로, 교량 등 공작물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시설물의 안전은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이 제대로 부여되고 있는지가 중요하므로 시설물에 대한 안전등급부터 전체적인 재점검을 실시하도록 당부했다.

/유호성기자

전북, 탄소산업 메카 '날개 달다'

규제자유특구 지정... 전국 최초 독보적 지위 확보 탄소소재법 개정·국가산단 승인 이은 마지막 퍼즐 소재 자립화로 가치사슬 완성... 경쟁력 상승 기대

전북이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지정되면서 관련 산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집행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했다.

<관련기사 2, 3면>

탄소산업을 국가적으로 추진할 근거인 탄소소재법 개정과 국가산업단지 지정 승인에 이어 국산 탄소섬유의 소재 자립화를 통해 가치사슬(Value Chain)을 완성할 규제자유특구도 전국 최초로 지정됨에 따라 탄소산업이 퀀텀점프(Quantum Jump)할 수 있는 기본 3가지 요소를 모두 갖추게 된 것이다.

전북도는 6일 국무총리(총리 정세균)가 주재한 제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가 지정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 확정된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는 탄소복합재 보강재 적용 소형선박 고압 대용량 탄소복합재 수소운송시스템 등 3개 실증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올해부터 2024년 6월까지 4년(2+2년) 동안 전주시, 군산시, 완주군 등 15개(총 176.62km) 실증구역에서 일진복합소재(주) 등 10개 기업과 한국탄소융합기술원 등 6개 기관이 참여해 진행하게 된다.

▲국산 탄소섬유 소재 자립화로 국가 경쟁력 확보=전북의 탄소융복합 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전국 최초로 독보적 지위를 확보, 앞으로 진행할 탄소융복합산업 실증사업에는 (주)효성첨단소재 전주공장에서 생산하는 국내

기술로 제작한 탄소섬유를 사용할 계획이어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일본의 소재부품 장비에 대한 수출규제 영향으로 인한 국산탄소섬유의 소재 자립화로 이어지는 호기를 전북도가 적극적으로 활용, 전북 탄소산업의 가치뿐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1조 원가량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효성첨단소재(주)가 연간 2천4천 톤의 탄소섬유를 생산할 경우 특구 내 기업들이 30% 이상을 지속 사용할 것으로 예측돼 안정적인 기업 경영활동이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체계 구축=현재 도내에는 탄소관련 기업체 156개사가 운영되고 있지만 95% 이상이 영세한 중소기업으로 탄소복합소재 중간재 제조업체가 전무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통해 중간재를 생산하는 중견기업들

타 시도로부터 유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이는 특구 내에서 소재생산, 중간재, 부품(복합재), 완제품으로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게 할 수 있게 됐다.

▲대규모 투자유치, 경제효과·고용효과 기대=이번 특구 지정은 탄소소재 국산화 밸류체인의 완성과 함께 국산 탄소섬유 사용 증가로 이어져 국내 시장 50% 이상 점유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참여 기업들은 총 1,740억원의 시설 투자를 계획하고 있어 3,637억원의 경제적 효과와 388명의 직접고용 등 1,166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경제 및 국민 안전에 기여=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가 최종 지정됨에 따라 탄소복합재 보강재 적용 소형선박과 525기 압급 수소이송용기 운송시스템, 탄소복합재 경량 소화수 탱크 소방차의 규제를 해소함으로써 탄소산업의 신시

장 창출이 가능해졌다. 특히 군산지역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등으로 소형선박 제조업체도 도산 위기를 겪고 있고 지역 자체가 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상황에서 이번 경량화 소형어선 선박 제조 특구 지정은 관련 기업들에게는 긴 가름에 대비와 같은 소식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화재 시 골든타임 확보가 가능하도록 소방특장차 물탱크 용량을 늘리고 소형선박도 난연성으로 제조하게 되어 국민 재산피해의 최소화와 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정도 유리한 고지 선점=전북도는 '탄소소재법'이 지난 5월 통과됨에 따라 대한민국 탄소산업의 수도로 발돋움하기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도는 이번 특구 지정이 탄소산업 정책의 마지막 퍼즐을 맞춘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국가 공공기관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정과 탄소산업육성 종합계획(2020~2024년, 5개년) 수립을 통해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탄소소재산업의 생태계를 완성해 국·내외 탄소소재 시장을 주도해 나가겠다는 목표에 성큼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번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15여 년의 세월 동안 지역에서 씨를 뿌려 육성한 산업이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전략산업이 됐음을 국가가 인정했다는 의미를 갖는다며 “탄소융복합 소재 융제품에 대한 충분한 실증을 통해 탄소산업의 생태계를 강화하고 친환경 자동차, 수소산업 등 전방산업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탄소산업 수도로서 국·내외 탄소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성기자

강염병 의식되면
'1339'로

전라북도 1시군 1대표 관광지

승마체험과 관광은 장수의 지름길

전라북도 장수에서 말 달리자!